

정부, 민간 대북 지원 3개 안건 의결

구영회 기자 | 승인 2021.09.24 18:03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 총 100억 지원 등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여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 사업'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총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및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등 보상에 11억 7,093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경원선 남측구간 토지 등 보상은 2016년 11월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된 이후 추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해당 주민들의 보상 요구가 있어 왔다.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대해 7억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고성 평화의길 고성노선은 코로나19 완화 시 우선 재개방 대상이나, 차량 이동구간인 금강통문~금강산전망대(2.3km) 도로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차량 운전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재개방에 앞서 연내 도로 아스콘 포장 등 긴급 개보수를 추진해 방문객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구영희 기자 asianews24@gmail.com